

급변하는 中 스마트폰 시장... 짐사는 삼성, 현장 찾는 애플

화웨이, 자체 OS 기반 시장 장악
삼성, 베트남·인도 생산공장 이전
애플 팀쿡 CEO, 올해 中 세번 방문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앞세웠던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인 화웨이가 독자 생존에 본격 나서면서 중국 내수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최근 화웨이는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자 자체 OS인 하모니OS 넥스트를 개발했다. 특히 화웨이가 새로 출시하는 메이트70에도 이 OS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삼성 전자는 물론 애플까지 외국계 스마트폰 기업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삼성 전자는 이미 중국 공장을 철수한 한편 애플 최고경영자 팀쿡은 올해 들어 중국만 세번 방문하며 중국 시장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26일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기준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는 비보(18.6%), 2위는 애플(15.6%), 3위는 화웨이(15.3%)가 차지했다. 화웨이는 자국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42% 성장률을 보이며 애플을 무섭게 추격하고 있다. 중국 시장 내 삼성전자 점유율은 1%를 밑돌며 저조한 수준이다.

다만 삼성전자는 이미 중국 시장에서의 철수한 상태다. 2019년 중국 마지



지난 3월 상하이 신규 플래그십 애플스토어 오픈식에 참석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 /뉴시스

막 스마트폰 공장인 광둥성 후이저우 공장을 닫았다. 한때 중국 스마트폰 시장 1위였지만 점유율이 1%를 밑돌자 휴대전화 공장을 모두 철수하고 베트남과 인도로 생산을 이전했다.

특히 한 때 중국시장 1위를 차지했던 애플은 최근 점유율이 크게 밀리자 중국 시장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들어서만 세번째 중국을 방문했다.

쿡 CEO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중국 국제무역촉진협의회(CCPIT)가 개최하는 '중국국제공급망진흥박람회' 개막에 앞서 박람회장을 찾았다. 그는 런훙빈 국제무역촉진협의회 회장과 박람회장을 둘러봤다.

그는 올 3월과 지난달에 이어 올 들어

세 번째 중국을 찾았다. 쿡 CEO는 이 자리에서 취재진 질문에 "애플의 중국 파트너를 매우 높게 평가한다"며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 하는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쿡 CEO의 방중은 지정학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라인을 중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다각화하려는 와중에도 중국 시장이 애플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중국 제조사들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중국) 본토에서 아이폰 판매량이 급감했다"고 풀이했다.

반면 화웨이는 자체 개발한 토종 OS를 신형 스마트폰에 탑재하며 내수 시장을 장악하고 나섰다.

이날(현지시간) 화웨이는 메이트 70

을 공개했다. 지난해 공개한 메이트 60의 후속 모델로, 자체 OS인 하모니 넥스트와 자체 개발한 첨단 반도체 칩을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화웨이는 지난 2019년 미국의 강력한 대중 제재의 영향으로 5G 스마트폰용 반도체 확보, 안드로이드 OS 접근 등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화웨이는 자체 OS의 생태계를 크게 키운다는 목표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하모니 OS는 지난 1분기 중국에서 점유율 17%를 차지하며 애플의 iOS(16%)를 제쳤다. 현재 1위는 구글 안드로이드(68%)다.

화웨이는 지난해 출시한 메이트 60 프로에 중국 내에서 자체제작한 7nm(나노미터) 공정의 5G 칩 '기린 9000s'를 탑재하면서 부활에 나섰다. 이번 메이트 70에도 자체 개발한 6nm 칩인 '기린 9100'이 탑재된다. CPU(중앙처리장치)와 GPT(그래픽처리장치) 성능 모두 기린 9000s보다 한층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전히 미국 제재의 영향이 남아있어 고급 반도체 노드 사용 등에 제약이 있는 만큼 퀄컴 등의 최신 칩보다는 성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OS의 경우에도 화웨이는 미국의 대중 제재 이후 안드로이드 대신 자체 개발 OS인 '하모니 OS'를 개발해 활용해 왔다. 공식 안드로이드 OS는 아니지만

구글이 배포한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개발했기에 기존 안드로이드 앱들과 호환이 가능했다.

하지만 하모니 OS의 5번째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등장해 메이트 70에 최초 적용되는 하모니 넥스트는 안드로이드를 아예 지원하지 않는 폐쇄형 OS로 개발됐다. 하모니 넥스트에서는 안드로이드 앱을 지원하지 않는다.

즉 화웨이가 애플 iOS처럼 독자 생태계 구축에 나선 셈이다. 현재 대부분의 주요 앱들이 안드로이드 버전, iOS 버전을 따로 제공하고 있는 만큼 하모니 넥스트도 별도로 최적화된 앱이 있어야만 한다.

한편 화웨이는 메이트 70 공식 출시에 앞서 지난 18일부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시작했다. 공식 출시 일인 이날 오전까지 사전 예약자 수는 약 323만명으로 집계됐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화웨이 메이트 70. /화웨이 홈페이지 캡처

>> 1면 '트럼프시대 韓 경제...'서 계속

롯데그룹, 바이오분야 9000억 투입... 신성장동력 찾는다

롯데바이오로직스 자금보충약정
공장인수·시설확충 '투 트랙 전략'

롯데그룹이 바이오 사업을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며 롯데바이오로직스 사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2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롯데지주는 롯데바이오로직스와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약정은 롯데바이오로직스의 대출 계약과 관련된 것으로, 거래 내용은 롯데지주가 롯데바이오로직스와 대주단의 대출 계약상 채무 상환 재원이 부족할 경우 자금을 보충한다는 것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인천 송도에 바이오 캠퍼스 1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9000억원을 빌렸다. 이번 자금보충약정 금액은 롯데바이오로직스



롯데월드타워 전경

의 대출 원금 9000억원과 이자, 수수료, 기타 금융비용 등 대출 계약상 채무 전체로 설정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일부터 자금

보충약정 거래 시작되며 거래 종료일은 롯데바이오로직스의 대출 채무 상환 완료일인 오는 2031년 11월 28일이다. 총 거래 규모는 자금보충약정 수수료 283억100만원으로, 거래 기간 동안 롯데지주는 롯데바이오로직스로부터 분할해서 받는다.

이번 자금보충약정뿐 아니라 롯데지주는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출범한 지난 2022년 6월부터 현재까지 롯데바이오로직스에 직접 투자하며 바이오 사업에 주력해 왔다.

롯데지주는 앞서 올해 6월에는 1200억원 규모 출자를 단행해 롯데바이오로직스 지분 80%를 확보했다. 지난 2023년에는 유상증자 참여 방식으로 820억원 수준의 투자도 집행한 바 있다.

롯데그룹은 일찍이 '바이오엔젤릭스', '모빌리티', '지속가능성', '뉴라이프 플랫폼' 등을 주제로 신사업을 전개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밝혀 왔으며, 롯데바이오로직스 송도 바이오 캠퍼스는 바이오엔젤릭스 부문의 핵심 사업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인천 송도에서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을 짓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송도 바이오 캠퍼스는 바이오의약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상업 생산에 이르는 '엔드 투 엔드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가능한 디자인으로 설계되는 것이 특징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올해 창립 2주년을 맞이했고 공장 인수와 시설 확충이라는 두 가지 방향성을 갖춘 '투 트랙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며 "아직 사업 초기이며, 오는 2025년부터 생산 시설이 추가적으로 가동되면 미래 사업에 대한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3분기 카드 해외사용 57억달러 '사상 최대'

여름방학 등 계절적 요인 영향

올해 3분기(7~9월) 내국인이 사용한 카드 해외 실적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온라인 해외 직접구매는 감소했지만 여름방학 등의 계절적 요인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출국자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에 따르면 3분기 거주자의 신용·체크카드 해외사용금액은 57억6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51억8500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최대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9.1% 증가한 수준이다.

카드해외 사용실적이 증가한 이유

는 여름방학 등의 계절적 요인으로 내국인 출국자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3분기 내국인 출국자수는 717만 3000명으로 전분기(698만8000명)와 비교해 8.7% 늘었다. 반면 온라인쇼핑 해외 직접구매액은 2분기 14억7000만 달러에서 3분기 14억1000만달러로 4.4% 줄었다.

사용하는 카드 수도 증가했다. 2분기에는 1753만7000장이 사용됐지만 3분

기에는 1854만5000장이 쓰였다. 5.8% 늘어난 수치다.

카드별로는 신용카드 선호도가 높았다. 3분기 신용카드 금액은 39억 4000만달러로 전체 사용금액중 69%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국민이 3분기 해외에서 카드 한 장당 사용한 금액은 308달러로 2분기 296달러보다 4.1% 증가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산업계, 관세 대응 총력 매출 등 경영부담 최소화

A업체 관계자는 "메모리 반도체(D램/NAND플래시) 등의 수요 부진에 따른 시세 불안정으로 악성재고화 될 수 있다"며 "반도체 기업의 매출 하락은 물론 재고보관 비용 증가로 인한 경영 부담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과 석화업계의 경우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철강업계는 "중국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경우 미국 수출 물량에 정체가 발생하면서 아시아 철강시장에 풍선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중국 철강 물량이 다른 지역으로 선회하면서 그로 인해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석화업계는 "이번 관세 조치로 인해 국내 석화업계가 단기적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며 "다만 중국의 공급 과잉과 저가 공세로 인해 국내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내 업계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 IT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중심 공급망에 의존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이와 연계된 국내 기업 모두에게 영향 미칠 것"이라며 "특히 중국산 부품과 소재 사용하는 대기업 및 스타트업, 생산 원가 상승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김서현·차현정·이혜민 기자 ysw@